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배포일시	2025.8.18.(월) 07:00		
담당부서	(재)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	책임자	부장	이시종	032-290-2045
		담당자	대리	허아영	032-290-2049

“한글날·기획특별전·국제학술대회까지 하반기 행사 풍성” 국립세계문자박물관, 행사 소개

- 10월 9일,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동 주최 한글날 기념행사 다채롭게 준비
- 10월 28일, 한·이(韓·伊) 수교 140주년 기념, 국내 최초 ‘알도 마누치오’展 개막
- 10월 17일, 제3회 국제학술대회 개최, 표음문자 발전과 한글의 위상 조명
- 10월 중 ‘유아학습실’ 신규 개방, 영유아 동반 가족 맞춤형 공간 조성

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올 하반기, 한글날 기념행사와 제6회 기획특별전,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사업을 선보인다.

10월 9일(목) 한글날에는 ‘훈민정음·한글’을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행사가 열린다.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북콘서트, 휴식형 독서 쉼터와 체험 부스를 조성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

10월 28일(화)에는 제6회 기획특별전이 개막한다. 이번 특별전은 한국-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‘한국-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’(2024~25) 일환으로 국내 최초 르네상스 시대 인쇄·출판 혁신가 ‘알도 마누치오(Aldus Manuzio)’를 본격 조명한다. 《천천히 서둘러라》라는 제목으로 10월 28일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마누치오의 인쇄·출판 혁신과 그 유산을 소개하며, 책의 가치와 미래를 함께 탐구하는 장을 마련한다.

10월 17일(금)에는 세 번째 국제학술대회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. 이번 대회는 알파벳의 기원부터 지중해 문화권의 문자 혁신, 아랍 문자로의 확장까지 표음문자의 발전 과정을 살핀다. 이를 통해 문명과 문

자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고, 세계 문자 속에서 한글의 위상을 재조명한다. 각 세션에서는 알파벳의 탄생·혁신·확장을 주제로 발표하고, 국내외 연구자들의 최신 성과를 공유한다.

또한 10월 중에는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‘유아학습실’이 새롭게 문을 연다. 문자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며 휴식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, 개방 시기에 맞춰 이벤트를 운영해 관람객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.

이 밖에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. 켜기문자 자료의 원문 해석과 연구 성과를 담은 자료집도 발간해 국내 고대 문자 연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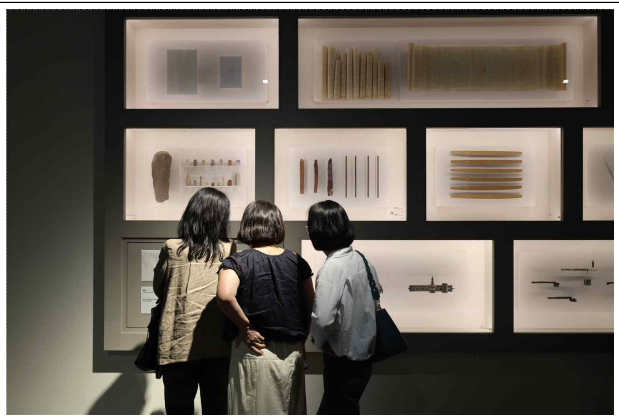
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계자는 “하반기에는 관람객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”이라며 “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흥미롭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

붙임 : 이미지 자료 1부. 끝.

□ 이미지 자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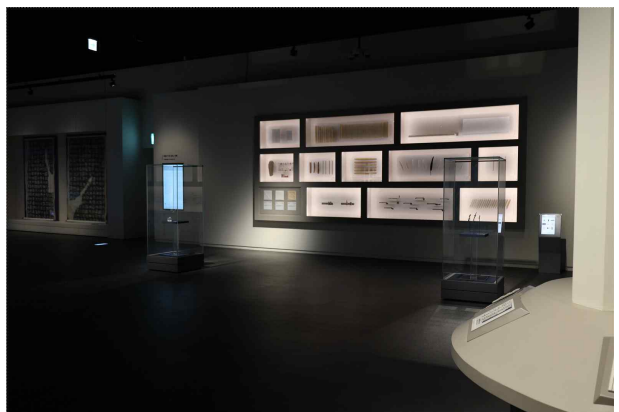
[사진1]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외관 사진



[사진2]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관람 모습



[사진3]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시실



[사진4]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시실